곡성, '고향사랑기부제' 지역소멸 극복 모델 제시

군, '소아과'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 성과
전국 최초 개원·상시 운영…주민참여형 의료 혁신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혁신 사례로 전국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8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 오송컨벤션센터(OSCO)에서 열린 '제2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전국 지자체가 모금 성과와 기금 활용 사례를 공유·경쟁하는 자리로, 전문가 심사와 청중평가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곡성군은 발표에서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을 소개하며 호응을 얻었다. 곡성은 인구 2만6000여명의 고위험 소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전국 최초로 소아청소년과 출장진료(시즌1)'를 개설했다. 이후 주민 설문에서 60% 이상이 '상시진료'를 원한다는 응답이 나오자, 군 보건의료원 내 상시진료(시즌2)로 확대했다.

사업 과정에서는 의사 구인, 법령 유권해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개발 등 제도적 난관이 있었으나,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해결책을 마련했다. 또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환류형 시즌제 기금사업을 추진해 주민 100% 만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주민 90% 이상이 '소아과 개설이 기부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발적 홍보에 나선 점도 주목을 끌었다.

아울러 곡성군은 9000여명 규모의 '곡성사랑응원단' 활동, 전국 유일의 기부형 답례품 '곡성사랑 플렉스권' 개발, 수혜자 자필 편지 전달 등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재기부 참여를 이끌어내며 기부 문화를 확산시켰다.

곡성군은 최근 충북 청주 오송컨벤션센터(OSCO)에서 열린 '제2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상래 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기부자가 함께 만든 성과다"며 "앞으로도 기부금이 주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보강, 청년·가족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상시진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군민 수요가 높은 지정기부 사업을 확대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기부-관광-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

고독사 위험군 선제 발굴 영광, 30일까지 실태조사

영광군이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군 선제 발굴에 나선다.

8일 영광군에 따르면 30일까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군 선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고독사 위험군 판단 도구를 활용해 주거형태, 1인 가구 사유, 위험 정도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독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2025년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병행하여 추진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장,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이 참여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조사 가구 중 주소 미이전 가구나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거주자를 확인·조사를 하며, 특이 민원이 예상되는 가구는 2인 1조로 공무원이 직접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사로 파악된 고위험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 지역사회 연계 자원 지원, 정기적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

여수 연안 적조 피해 예방 총력 대응

시, 하루 400t 황토 살포… 정화선·방제정 등 방제

여수시가 연안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양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여수 연안 해수 온도는 25도 안팎으로,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증식에 적합한 조건이다. 여기에 육상 영양염 유입까지 더해지면서 적조띠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시는 양식장 밀집 해역을 매일 예찰하며 코클로디니움 밀도를 측정하고, 일일 방제 계획을 세워 대응 중이다.

특히 시 정화선 3척, 도 정화선 1척, 해경 방제정 1척, 임차 철부선 7척을 투입해 적조 밀도가 높은 해역에 하루 약 400t의 황토를 살포하고 있다.

아직까지 적조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조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대량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여수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방류 신청을 받은 56어가를 대상으로 참돔, 감성돔, 우럭, 농어 등 약 327만 미를 선제 방류했다. 이번 긴급 방류는 적조가 수일째 이어지면서 양식어류 집단폐사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업인들께서 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사료 공급 중지, 수류 방제 실시, 액화산소 및 산소발생기 가동, 육상양식장 야간 취수 금지 등 방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함평 고분군·금산리 방대형 고분, 사적 지정 '눈앞'

역사·학술 가치 종합 점검

함평군 예덕리 고분군과 금산리 방대형 고분의 사적 지정을 앞두고 학계와 관계 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예덕리 고분군·금산리 방대형 고분에 대한 사적 지정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현지조사에는 이승용 사적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전문가,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관계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두 유적은 현지 조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가유산청의 30일간의 지정 예고를 거쳐,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인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예덕리 고분군은 '만가촌고분군'으로 알려진 '예덕리고분군'과 '신덕고분군'을 단일 유적으로 통합해 '예덕리 고분군'으로 명칭을 부여한 무덤 유적이다.

현재 예덕리고분군에는 제형분 14기와 신덕고분군의 전방후원형 고분 1기, 원형분 1기를 포함해 총 16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매장시설로는 목관(곽), 옹관, 횡혈식 석실, 능산리식 석실 등이 발견돼, 다양한 묘제형태와 매장주체부를 한 공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예덕리 고분군·금산리 방대형 고분에 대한 사적 지정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사진은 현장 설명을 하고 있는 이상익 함평군수.

특히 마한 소국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이 지역에서는 재지품 및 수장급 유물인 금동관과 유리구슬 등이 출토됐다.

예덕리고분군은 1994년 시굴 조사 이후 1995년과 2001년 전남대학교 박물관이 총 3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를 했으며, 신덕고분군은 1991년 긴급 수습을 시작으로 1992년과 1996년, 2000년에 국립광주박물관이 발굴 조사하며 두 유적 모두 전라남도 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

금산리 방대형 고분은 남한 내 최대 규모의 즙석분으로, 방형 석축과 전면의 즙석 시설은 기존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권 옹관고분의 전통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축조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고분은 전남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를 했으며 이 또한 전남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이상익 군수는 "두 유적은 함평의 뿌리이자 영산강 유역 고대사를 여는 열쇠다"며 "이번 현지조사로 사적 지정의 당위성이 충분히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고흥 녹동항 드론쇼 이벤트 26일까지 가족 프러포즈 접수

고흥군은 녹동항 드론쇼와 연계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선사하고자 '2025 고흥 녹동항 드론쇼 패밀리 프러포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 배우자·자녀에 대한 사랑과 격려 등 가족에게 전하는 따뜻한 마음이며, 형식에 제한 없이 누구나 녹동항 드론쇼 홈페이지(http://nokdongdrone.co.kr) 또는 고흥군청 우주항공추진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오는 26일까지이며, 다음달 초 2개 사연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연은 다음달 중 녹동항 밤하늘을 배경으로 화려한 빛을 내는 드론을 통해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아름답게 연출할 예정이다.

군 우주항공추진단 관계자는 "드론쇼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군민과 관람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형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녹동항 드론쇼는 드론중심도시 고흥군의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